

# 귀여운데 강렬하다

다이나믹 고성능 SUV  
벤츠 'AMG GLA 45 4MATIC+'  
국내 공식 출시...7621만원부터



고성능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A 45 4MATIC+'이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의 고성능 모델로, 이전보다 휠베이스와 전고가 높아져 넓어진 실내공간을 자랑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최근 고성능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A 45 4MATIC+'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A 45 4MATIC+은 지난해 9월 공식 출시 이후 지난 4월까지 약 2400대 판매되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A의 고성능 모델이다. 수작업으로 조립된 2.0ℓ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87마력, 최대 토크 48.9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 정지 상태에서 시속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은 4.4초다. 또 AMG 스피드시프트 DCT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돼 더 빠르고 역동적인 주행경험을 선사한다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설명했다.

여기에 AMG 라이드 컨트롤의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 AMG 다이나믹 셀렉트 등이 탑재된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스티어링까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개별 설정할 수 있어 다양한 주행 모드를 경험할 수 있다. 2개의 전자식 컨트롤 멀티-디스크 클러치가 리어 액슬 구동축에 결합돼 휠의 앞과 뒤뿐 아니라, 좌측과 우측으로도 트랙션을 분배할 수 있어 코너링 상황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뉴 AMG GLA 45 4MATIC+는 '다이나믹 고성능 SUV'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내·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전면부에는 AMG 전용 파나메리카 그릴과 AMG 전용 실버 크롬 프론트 스플리터, 에어 인테이크가 적용됐고, 쿠페를 연상시키는 측면부는 그레이 캘리퍼가 적용된 AMG 하이-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과 19인치 AMG 10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이 장착됐다. 차량 색상과 동일한 AMG 스포일러 릿과 크롬 재질의 트윈 테일파이프 역시 AMG만의 차별화를 드러내는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이전 모델 대비 앞과 뒷바퀴 사이 길이인 휠 베이스가 30mm 길어졌고, 전고(높이)도 110mm 높아졌다. 덕분에 더 높은 좌석 포지션과 여유로운 헤드룸, 넉넉한 실내공간은 물론, 파노라믹 선루프가 기본 적용돼 개방감이 향상됐다. 또 뉴 AMG GLA 45 4MATIC+에는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이 탑재돼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기능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기본 탑재됐다.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은 자동 재출발 시간을 최대 30초까지 지원해준다. 맵 데이터 기반으로 곡선구간, 톨게이트, 원형 교차로 등을 인식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경로 기반 속도 조절 기능'과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유지 어시스트',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등이 포함됐다. 한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A 45 4MATIC+의 권장 소비자가격은 부가세 포함 7621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현대차, 21년형 출시

현대자동차는 21년형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을 출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으로, 지난해 7월 10대를 선적해 스위스로 수출한 바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총 46대를 스위스로 수출해 현재까지 종합 누적거리 75만km를 달성했다. 주행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동급 디젤이 1km 당 0.78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 10개월 동안 스위스 전역에서 약 585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 효과를 거뒀다. 21년형 모델은 기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에 신규 그릴을 적용하고 사시 라인업을 추가한 것이 특징으로, 전면부는 직선적이고 굽은 V자 형상의 크롬 장식과 입체적인 메쉬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친환경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커졌는데 날렵하다

기아, 신형 스포티지 티저 이미지 공개...4세대 출시 6년만에

기아가 대표 베스트셀링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신형 스포티지 티저 이미지(사진)를 지난 31일 최초 공개했다. 기아 광주 오토랜드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는 1993년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전세계 판매 누적 600만대 이상을 기록한 기아의 대표적인 SUV 모델이다.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2015년 4세대 출시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5세대 모델이다. 기아는 신형 스포티지에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인 '영감을 주는 움직임'(Movement that inspires)을 전달하기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형 스포티지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바탕으로 자연의 대담함과 현대적인 감성을 반영해 역동적이면서도 심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외관은 기존 모델에 비해 자체 크기를 키워 날렵하면서도 한층 웅장해졌다. 또 이와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볼륨으로 안정적인 균형감을 보여준다. 전면부에는 날렵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를 적용해 미래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된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국내 준중형 SUV 최초로 탑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장기 미입고 차량 무상점검 마세라티 7월 30일까지

이탈리안 하이퍼퍼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는 오는 7월 30일까지 장기 미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 '백 투 마세라티 패밀리'(Back to Maserati Family)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은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는 시기를 앞두고, 장기 미입고 고객이 차량 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 미입고 고객은 차량 보증 기간이 만료된 고객 중 지난 18개월간 마세라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다. 마세라티는 행사 기간 전국 9개 서비스센터에서 장기 미입고 알림 문자 수신 고객을 대상으로 120가지 항목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또 유상수리 부품 20% 할인, 타이어 부품 20% 할인, 액세서리 부품 35% 할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청정 그린뉴딜

**투어**  
남해안의 기적  
신성장 관광벨트

**바이오**  
바이오 메디컬  
허브, 전남

풍부한 청정자원 중심의  
**'블루이코노미'** 사업을 통해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

**에너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

**트랜스포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중심, 전남

**시티**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

**농수산**  
미래 생명산업의  
메가, 전남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순천시 백강로 38(연향동) T. 061) 286-7821~4